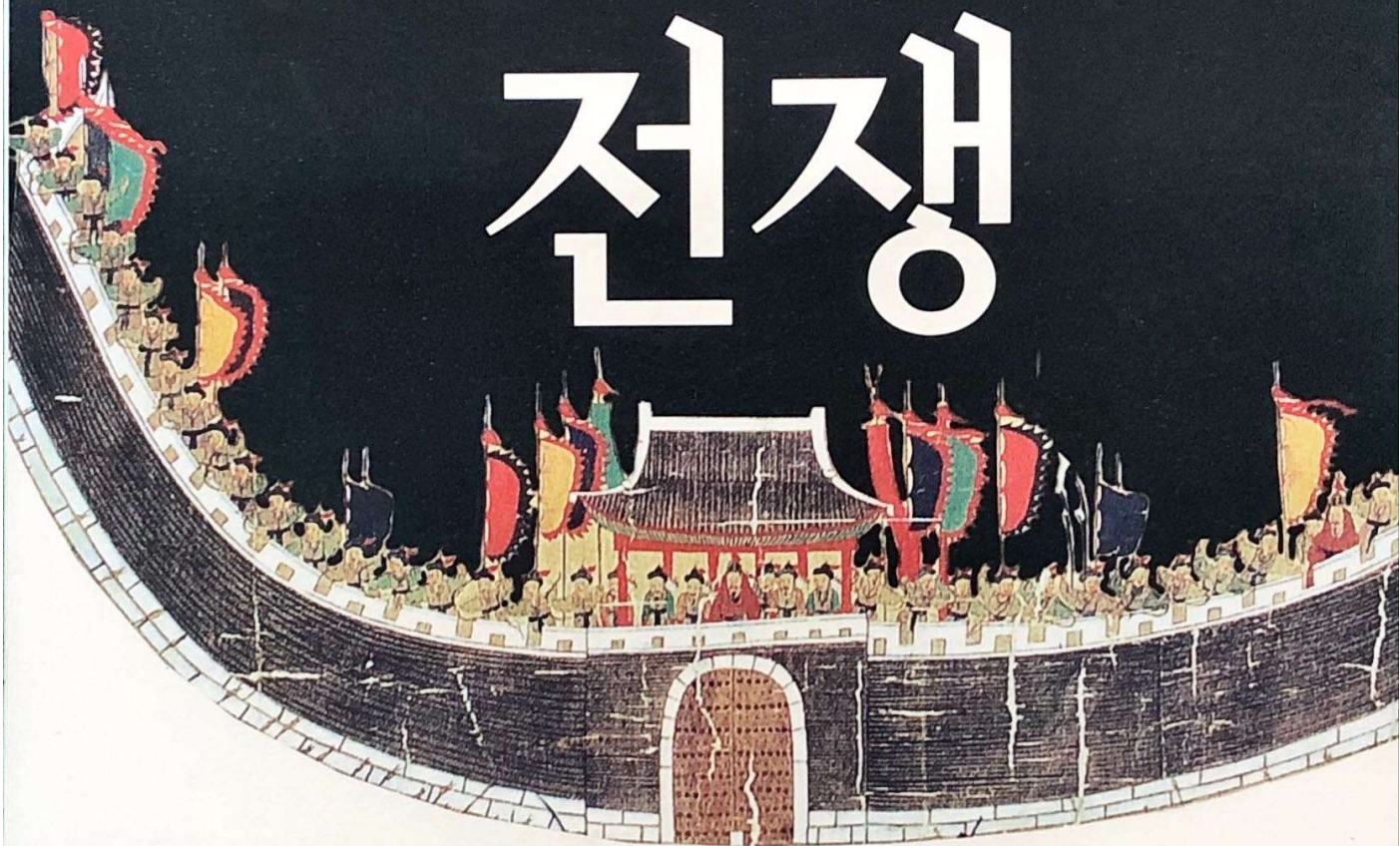


한국역사 속의 전쟁



戰 爭

새문사

방기철



방기철

방기철은 건국대학교 사학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조선시대인들이 일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한국사에서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 중이다. 앞으로는 음식이나 인물 등 한국사를 다양한 주제로 풀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천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건국대학교 강사,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강의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는 「朝鮮初期 交隣國 使臣의 位次」, 「壬辰倭亂期 朝鮮 官僚가 바라본 日本軍」, 「栗谷 李珥의 대일인식」, 「1607년 朝·日 간 국교재개시 被虜人의 역할」, 「임진왜란후 조·일간 국교재개 과정 연구」, 『朝日戰爭과 조선인의 일본 인식』 등이 있다.

245 46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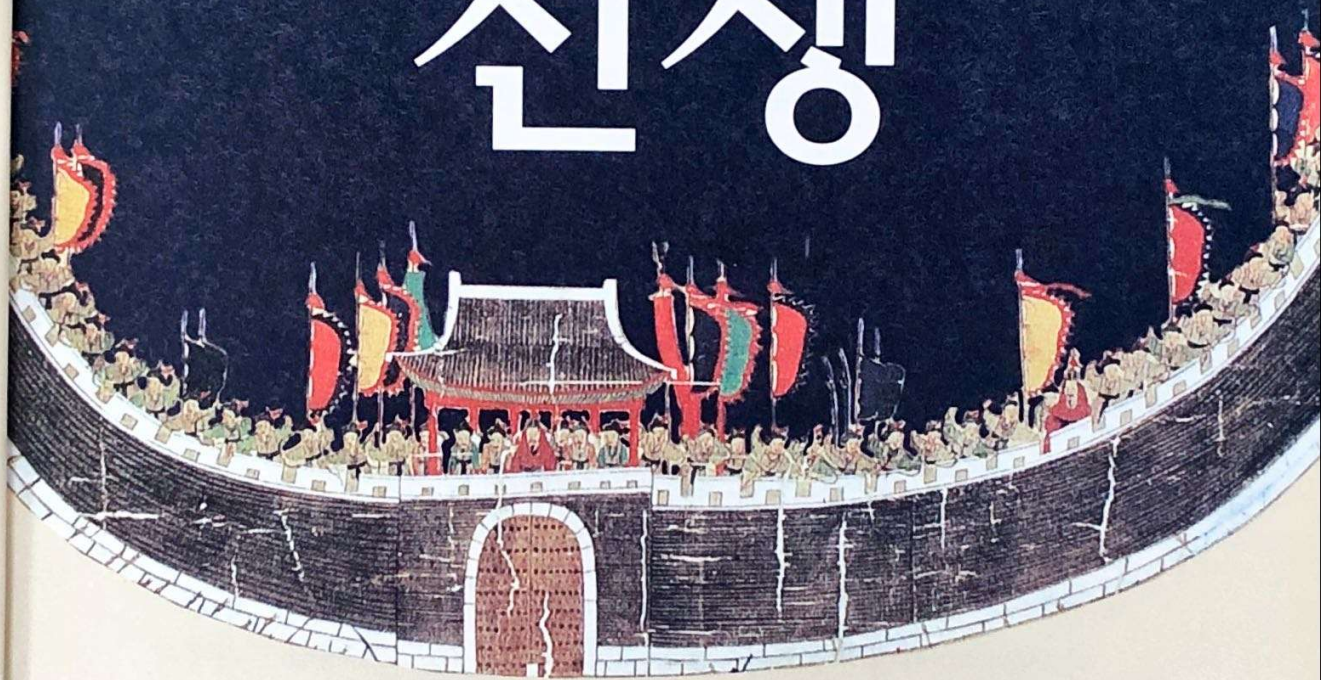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KOREAN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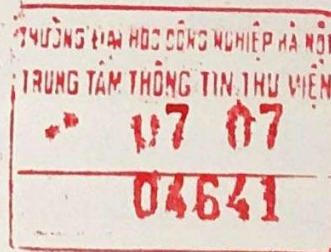
한국역사 속의 전쟁

11 07
08641

한국역사 속의 전쟁



방기철



새문사

책 머리에

어린 시절 필자는 군부대 관사에서 자라며 연병장에서 뛰놀았다. 군인아 저씨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내무실에서 잠도 잤다.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필자는 전쟁에 많은 흥미를 느꼈다. 박사 학위 논문 역시 조일전쟁과 관련된 것이었다.

박사학위 논문을 마친 후 조일전쟁에서 더 나아가 전쟁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공부하고 싶어졌다. 평소 우리 역사에서 전쟁은 큰 변혁을 가져오는 원동력 중 하나였으며, 사회변동을 초래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한국사를 이해하는 것도 좋은 공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전쟁과 관련된 책과 논문을 읽으며 내용을 정리해 나갔다. 전쟁이라는 주제가 흥미로워서였는지 공부하면서도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다. 시간강사 생활을 하면서 전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었던 것이다.

9년간의 시간강사 생활을 끝으로 전문대학교에 자리를 잡았다. 이를 계기로 어쨌든 이 책을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야만 또 다른 주제로 학문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나갔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다시 한 번 글쓰기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인간의 역사 그리고 한국사에서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간의 탄생과 진화과정을 전쟁과의 상관관계에서 다루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쟁사를 다룬 다른 책들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 수록된 고조선과 한의 전쟁,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고려와 거란 및 몽골과의 전쟁, 고려의 홍건적 격퇴, 조일전쟁, 조청전쟁, 서구 열강의 침략과 조선의 개항 등은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한민족의 저항 과정과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핀 것이다. 쓰시마 섬과 왜구에서는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를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삼국의 통일, 후삼국의 분열과 고려의 통일, 한국전쟁 등은 우리 민족의 분열과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했다.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은 전쟁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베트남전쟁은 현재 한국 사회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역사 속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책에서는 발해와 당의 전쟁, 발해의 멸망, 고려 숙종대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하여 동북 9성을 개척한 사실, 조선 세종대 4군 6진의 개척과 세조대인 1460년과 1467년 여진족 정벌 등은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전쟁들이 한국사에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료의 부족 등으로 엮어낼 수 없었다.

1274년과 1282년 고려가 원과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한 사실, 1654년과 1658년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나선정벌 등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전

쟁이 아니어서 언급하지 않았다. 1894년 있었던 농민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반외세·반침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군사행동 대부분이 정부군과 이루어졌던 만큼,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1894년 발발했던 청일전쟁은 조선에서 정치적 우월을 유지하려는 청과 초기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욕망이 충돌한 전쟁으로 우리 영해인 아산 앞바다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1904년의 러일전쟁 역시 제물포에서 최초의 전투가 있었으며 대한제국 군인들 중 일부는 일본군, 다른 일부는 러시아군에 합류하여 전쟁에 참전했다. 이처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우리 국토에서 일어난 것이며 우리 역사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일제강점기 발발했던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등에도 우리의 선조들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들은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닌 만큼 다루지 않았다.

전쟁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사를 조망한 이 책은 가급적 쉽게 역사에 접근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때문에 책에 수록된 내용 대부분이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중요한 학문적 기반에 의거했지만,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참고문헌을 통해 필자가 참고한 글들을 소개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현장감을 느끼고 필요한 사진 촬영을 위해 여러 곳을 답사하였다. 답사는 글쓰기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한 곳을 모두 가보지는 못했다. 때문에 필자가 직접 촬영하지 못한 사진 자료들을 제공받기도 했다. 사진을 제공해 주신 신안식·정학수 선배님, 한강문화재연구원의 오승환 실장님, 수원교회사연구소의 백신욱 선생님, 휘문고등학교의 이영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또 지도작업을 함께 해 준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최한솔 군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사진촬영을 함께 해 준 후배 이승배, 필자와 고민을 함께 해 준 역사를 사랑하는 30년 친구 한상용은 필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정년을 맞아 교단에서 내려오셨지만 이범직·백남욱 교수님은 지금도 필자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다. 김기덕·신병주 교수님은 늘 필자를 격려해 주셨고, 선문대학교의 여러 교수님들은 필자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오랜 시간 함께 해 준 처와 아빠를 최고로 알며 자라고 있는 채현과 승찬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것 같다. 또 척박한 출판계의 현실 속에서도 출판을 허락해주신 **새문사**의 이규 사장님과 예쁘게 책을 꾸며주신 편집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은 대학입학 후부터 한국 역사에 대한 필자의 관심과 앞으로의 역사 공부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필자는 한국사의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책의 출간을 한국사 공부의 또 다른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

2014년 10월

방기철

차례

머리말/ 4

1장 왜 전쟁인가?..... 13

1. 전쟁과 역사/ 14

2. 전쟁과 한국/ 16

2장 인간의 탄생과 전쟁..... 23

1. 인간의 탄생/ 24

2. 구석기~신석기시대/ 25

3. 청동기~철기시대/ 31

3장 고조선과 중국의 전쟁..... 37

1. 연과 진의 고조선 침략/ 38

2. 고조선과 한의 전쟁/ 40

4장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 45

1. 한~5호 16국시대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 46

2. 고구려와 수의 전쟁/ 52

3. 고구려와 당의 전쟁/ 60

5장 신라의 통일..... 69

1. 삼국간 전쟁양상/ 70
2. 백제의 멸망/ 75
3. 고구려의 멸망/ 88
4.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91
5. 신라의 당군 축출/ 95
6. 신라의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 99

6장 후삼국 분열과 고려의 통일..... 103

1. 후삼국의 정립/ 104
2. 고려와 후백제의 전쟁/ 107
3. 고려의 통일/ 116
4. 마의태자의 신라부흥운동/ 121

7장 고려와 거란의 전쟁..... 127

1. 거란의 등장/ 128
2. 거란의 1차 침입/ 130
3. 거란의 2차 침입/ 134
4. 거란의 3차 침입/ 138

8장 고려와 몽골의 전쟁.....143

1. 몽골군의 특징/ 144
2. 몽골의 침입/ 145
3. 삼별초의 항쟁/ 153
4. 전쟁의 영향/ 163

9장 홍건적의 침략과 격퇴.....173

1. 홍건적의 봉기/ 174
2. 홍건적의 침략/ 175
3. 홍건적 격퇴 이후의 일들/ 180

10장 쓰시마 섬과 왜구.....187

1. 쓰시마 섬과의 역사적 관계/ 188
2. 왜구의 등장과 쓰시마정벌/ 195

11장 조선과 일본의 전쟁.....207

1. 전쟁발발전 조선과 일본/ 208
2. 전쟁의 쟁점/ 214
3. 국난극복의 원동력/ 232
4. 전쟁의 영향/ 253

12장 조선과 청의 전쟁.....263

1. 호란, 합당한 용어인가? / 264
2. 전쟁전 상황/ 265

3. 청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 277

4. 전쟁의 영향/ 290

13장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과 조선의 개항.....297

1. 19세기 사회의 변동/ 298

2. 프랑스의 침략/ 300

3. 미국의 침략/ 308

4. 일본의 침략/ 315

14장 한국전쟁.....321

1. 한국전쟁의 쟁점/ 322

2. 해방전후의 상황/ 327

3. 전개과정/ 332

4. 전쟁의 영향/ 355

15장 베트남전쟁.....365

1. 한국과 베트남/ 366

2. 전쟁의 전개/ 368

3. 한국군의 참전/ 376

4. 전쟁의 영향/ 381

▶ 참고문헌/ 388

방기철은 건국대학교 사학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조선시대인들이 일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한국사에서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 중이다. 앞으로는 음식이나 인물 등 한국사를 다양한 주제로 풀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천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건국대학교 강사,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강의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는 「朝鮮初期 交隣國 使臣의 位次」, 「壬辰倭亂期 朝鮮 官僚가 바라본 日本軍」, 「栗谷 李珥의 대일인식」, 「1607년 朝·日 간 국교재개시 被虜人의 역할」, 「임진왜란후 조·일간 국교재개 과정 연구」, 「朝日戰爭과 조선인의 일본 인식」 등이 있다.

한국역사 속의 전쟁

값 20,000원

2014년 11월 28일 초판 발행

2015년 5월 28일 초판 2쇄



지은이 방기철

발행인 成珍慶

발행처 새문사

등록번호 제1-273호(1977.9.19)

주소: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6길 6-12

전화: (02)715-7232(대), 717-7235, Fax: (02)715-7235

E-mail: sinlon@saemoon.co.kr

website: www.saemoonbook.com

ISBN: 978-89-7411-409-1 03910

우리는 기원전 2000~1990년까지 931회 이상의 외침을 받았고, 그 기간은 230년이 넘는다. 고구려의 항쟁, 1948년 10월의 여순반란사건(10·19사건)과 제주 4·3항쟁, 한국전쟁 등 동족간의 전쟁민지 또는 속국의 상태로 88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1882년 6월 명성황후가 청의 군대를 끌어들 군사교관단이 1년 6개월, 일제강점 후 일본의 조선주둔군 36년,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8년, 1945년 110여 년 이상 우리 영토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다.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IỆP
TRUNG TÂM THÔNG TIN THU



Mã sách: 070704641

간의 전투, 삼별초
이른다. 그 외 식
관파천 후 러시아
미군이 69년 등

값 20,000원



9 788974 114091

ISBN 978-89-7411-409-1



03910